

‘귀신 들린 아들, 내 안에 속 사람을 향한 창문에 문제가 생긴 것’

귀신 들린 아들,  
내 안에 속 사람을 향한 창  
문에 문제가 생긴 것

<sup>37</sup>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새 <sup>38</sup>무리 중의 한 사람이 소리 질러 이르되 선생 님 청컨대 내 아들을 들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sup>39</sup>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sup>40</sup>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sup>41</sup>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네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sup>42</sup>을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러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낮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sup>4</sup>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눅9:37-43)

처음 생긴 래셔널(*rational*, 합리, 이성)이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사실은, 래셔널은 자기 여주인(*mistress*)을 경멸한다는 것, 곧 지적 진리(*intellectual truth*)를 가볍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이때는 지적 진리가 주(主, *manifest*)가 되지 못합니다. 인정받지를 못하기 때문인데요, 오류들과 겉으로 보기에 그럴듯한 것들이 흩어져 버리지 않는 한 그렇습니다. 이것들은 사람이 감각적인 것들을 가지고, 그리고 배운 지식들을 가지고 자기 본위로 진리들을 재단하는(*reasons*) 한 흩어져 버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가 단지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은 진리야라고 순진하게 믿는 순간, 그것은 주가 됩니다. 그 즉시 오류의 그늘들은 흩어져 버리고, 그리고 그 사람 안에서 그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그 어떤 것도 완전히 사라지고 없게 됩니다. (AC.1911:6) *Since the rational first conceived is such, it is evident that it despises its mistress, that is, it lightly esteems intellectual truth. Intellectual truth does not become ma*

눅9:37-43

‘귀신 들린 아들, 내 안에 속 사람을 향한 창문에 문제가 생긴 것’

*nifest, that is, is not acknowledged, except insofar as fallacies and appearances are dispersed, and these are not dispersed so long as the man reasons about truths themselves from things of sense and from memory-knowledges, but it for the first time becomes manifest when he believes from a simple heart that it is truth because so said by the Lord. Then the shades of fallacies are dispersed, and then nothing in him prevents him from apprehending it. (AC.1911:6)*

이 내용은 스페텐보리 저, ‘천국의 비밀’(Arcana Coelestia, 아르카나 코엘레스티아, 창세기, 출애굽기 속뜻 주석) 1911번 글 여섯 번째 항 인용이며, 이 글은 창세기 16장 4절, ‘아브람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중,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And she saw that she had conceived, and her mistress was despised in her eyes.)에 관한 속뜻 주석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의 내적 의미, 속뜻은 주님께서 인간을 당신의 모습대로 거듭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인간을 세상에 내보내실 때에는 아무 목적 없이 내보내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영원한 삶을 준비하기를 원하시고, 또 그렇게 섭리하십니다. 세상 살면서 주님으로부터 선과 진리를 받아 자신의 생명으로 만드는 사람들은 사후 천국에서 영원히 삽니다. 반대로 지옥으로부터 오는 악과 거짓을 자신의 생명으로 만드는 사람들은 사후 지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선과 진리만이 진정한 생명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마치 봄날 햇볕과 같아 모든 것을 살립니다. 살아있는 것은 더욱 살아나게 하고, 생명 없는 곳에는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 줍니다. 그러나 악과 거짓은 반대입니다. 선하고 진실한 모든 것들을 파괴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그 자체로 죽은 것입니다.

‘귀신 들린 아들, 내 안에 속 사람을 향한 창문에 문제가 생긴 것’

어떻게 하면 선하고 진실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즉 진정한 생명을 취할 수 있을까요? 먼저 선이 무엇이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선과 진리에 대한 지식은 처음에는 말씀의 문자적 지식이나 세상의 법과 도덕 같은 것들을 통해 배웁니다. 그런 선과 진리를 우리는 자연적 선과 진리라고 부릅니다. 비록 자연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일단 선과 진리를 배웠으면 삶으로 옮겨야 합니다. 새 교회 가르침에 의하면, 그때 길 사람과 속 사람이 연결되고, 또한 합리(合理, rational)라는 지적 능력이 열립니다. 합리, 래셔널이란 영적 진리를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자연적 진리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등 오감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속 사람을 통해 흘러들어오는 영적 진리는 래셔널을 통해서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래셔널은 영적 진리를 이해하는 빛과 같은 것입니다.

※ ‘이웃 사랑’, ‘인애’로 번역하는 영어 ‘charity’를 그냥 ‘체어리티’라고 적듯이 ‘합리’, ‘이성’으로 번역하는 영어 ‘rational’ 역시 그

냥 ‘래셔널’로 적겠습니다. 어느 하나로 픽스, 번역함으로써 나머지 다양한 뉘앙스들을 놓치기 싫어서입니다.

창세기 16장 4절은 주님께 첫 번째 래셔널이 열리는 순간을 하갈이 이스마엘을 임신하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주님의 인성이 거룩하게 되신 과정은 우리 인간이 거듭나는 과정과 흡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래셔널이 열리는 과정을 보면서 우리는 자신의 거듭남 또는 래셔널의 상태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4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아브람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여기서 아브람은 주님의 속 사람을, 그리고 하갈은 선과 진리에 따른 삶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아브람과 하갈의 동침은 주님께서 선과 진리의 지식을 삶으로 실천하셨을 때, 주님 안에서 속 사람과 길 사람의 결합이 일어나신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세상에 계실 때, 어린 시절, 먼저 말씀의 문자적 의미를 통해 선과 진리를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셨습니다. 그때

‘귀신 들린 아들, 내 안에 속 사람을 향한 창문에 문제가 생긴 것’

주님의 겉 사람인 인성과 속 사람인 여호와와의 신성이 하나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의 첫 번째 래셔널이 열렸는데, 그것이 바로 하갈이 임신한 아들입니다.

그러면 임신한 하갈은 왜 사래를 떨시켰을까요? 사래는 아브람의 아내입니다. 그래서 사래는 주님의 속사람을 통해 흘러들어오는 영적 진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임신한 하갈이 사래를 떨시키는 것은 처음 래셔널이 열리기 시작할 때는 영적 진리를 가볍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래셔널이 영적 진리를 가볍게 여긴다는 것을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새 교회의 교리는 나 자신보다는 이웃을 더 사랑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처음 래셔널이 생길 때는 그것을 진리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있어야 이웃도 있는 것이 아니냐? 라고 반문합니다. 이런 태도가 하갈이 여주인을 떨시키는 모습입니다. 래셔널이 처음 생길 때는 이와 같이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거부합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합니다.

오늘 본문은 신앙인들에게 처음 래셔널이 열릴 때의 영적 상황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37절과 38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37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새 38무리 중의 한 사람이 소리 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말씀에서 ‘아이가 없다’는 것은 아직 래셔널이 생기지 않은 상태를, ‘아들이 하나 있다’는 것은 비로소 첫 번째 래셔널이 생겼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가 아들을 돌보아 달라 주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그의 래셔널에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39절입니다.

**39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처음 래셔널이 생겼을 때는 주님께서 속 사람을 통해 진리를 가르쳐 주셔도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래셔널이 처음 생겼을 때는 자기 생각대로 진리를 해석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하나

**‘귀신 들린 아들, 내 안에 속 사람을 향한 창문에 문제가 생긴 것’**

더 들어볼까요? 새 교회에서는 주님께게서는 오직 선이 나올 뿐, 악은 나오지 않는다 가르칩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러나 처음 래셔널이 열렸을 때는, 주님은 우주 전체를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선뿐만 아니라 악도 주님이 만드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혀 잘못된 생각입니다. 가끔은 악이 선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진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악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선이 없는 상태일 뿐입니다. 그것은 어둠이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어둠은 존재가 아니라 그저 빛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정확히 말하면, 주님은 악을 만드시지 않았고, 선이 없는 상태를 허락하셨다는 것이 옳습니다. 주님께서 악을 허락하신 까닭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신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기회가 있을 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든 처음 래셔널이 생겼을 때는 이러한 진리들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갖가지 오류에 빠지기도 하고, 가끔은 말씀의 글자의 뜻을 왜곡, 거짓을 추론하는

지옥의 영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영적으로 이러한 상태가 지금 귀신이 아이를 붙잡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그를 잡아 잡자기 부르짖게 하고’**는 거짓말하는 것을,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는 진리를 왜곡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이 진리를 뜻한다면, **‘거품’**은 왜곡된 진리를 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지성인이라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임의로 재단, 거짓으로 만듭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래셔널이 죽은 사람들입니다. 지금 아들의 상태가 그렇습니다. 지옥의 영들이 그의 래셔널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들 아버지가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라고 주님께 청하는 것은 **‘저의 래셔널을 돌보아 주십시오’**라고 청하는 것입니다. 40절에서 아이 아버지가 다시 말합니다.

**40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여기서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을 믿고, 믿음에 따라 인애의 삶을

‘귀신 들린 아들, 내 안에 속 사람을 향한 창문에 문제가 생긴 것’

사는 모든 사람들을 뜻합니다. 따라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쫓아 달라고 한 것은 그 속뜻으로는 그 사람 자신이 말씀의 글자의 뜻에 따라 선하게 살려고 노력했다는 뜻입니다. 온전한 래셔널을 갖기를 희망하면서 말입니다. 그럼에도 래셔널은 바뀌지를 앓았습니다. 비록 문자적 의미이긴 하지만 말씀에 따라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는데도 귀신에게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말씀의 문자적인 뜻 안에는 아직 주님의 신성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신성은 말씀의 내적 진리 가운데 충만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41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sup>41</sup>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네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래셔널이 완전히 열리지 않은 사람은 내적 진리, 곧 속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도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말씀하십니다. 래셔널이 열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께서 진리를 말씀하실 때 일단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아이의 아버지는 자기의 래셔널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더 이상 주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고, 영적 진리를 소유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를 사로잡고 있는 귀신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의 진리에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보실 때, 아이 아버지의 상태가 바로 이랬던 것입니다. 마침내 아이의 아버지가 주님이 시키신 대로 아이를 데려왔습니다.

<sup>42</sup>을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러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낮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본문에는 그때 ‘귀신이 그를 거꾸러뜨렸다’고 합니다. ‘귀신이 아이를 거꾸러뜨린다’는 것은 그의 래셔널이 교회의 모든 선과 진리를 왜곡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진리를 이해하는 능력인 래셔널이 오히려 교회의 선과 진리를 왜곡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더러운

‘귀신 들린 아들, 내 안에 속 사람을 향한 창문에 문제가 생긴 것’

귀신을 꾸짖으셨고, 그러자 아이의 병이 바로 나았습니다. 래셔널이 건강한 상태로 돌아온 것입니다. 래셔널이 돌아오는 것과 관련해, ‘천국의 비밀’ 1911번 글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류들과 겉으로 보기에 그럴 듯한 것들이 흩어져 버리지 않는 한 그렇습니다. 이것들은 사람이 감각적인 것들을 가지고, 그리고 배운 지식들을 가지고 자기 본위로 진리들을 재단하는 (reasons) 한 흩어져 버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가 단지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은 진리야라고 순진하게 믿는 순간, 그것은 주가 됩니다. 그 즉시 오류의 그늘들은 흩어져 버리고, 그리고 그 사람 안에서 그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그 어떤 것도 완전히 사라지고 없게 됩니다.

말씀의 글자의 뜻으로부터 무리하게 진리를 추측하는 습관에 젖어있을 때는 주님께서 진리를 보여주셔도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지적 능력을 믿고 진리를 마음대로 추론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아이를 아버지에게 돌려주셨습니다. 그러자 43절,

**43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래셔널이 건강해지면 속 사람으로부터 래셔널 가운데로 영적 진리가 끊임없이 흘러들어옵니다. 그리고 그것은 래셔널을 통해 다시 겉 사람 속으로 들어가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것이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삶을 사는 것은 신앙인들에게 큰 행복이지만, 그 자체로 주님의 위엄을 나타내는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거듭나는 삶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가 믿는 진리의 능력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는 말로 전하기보다는 삶으로, 인격으로 전해야 합니다. 귀신이 나갔을 때,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속 사람과 겉 사람 사이에는 래셔널이라는 지적인 능력

눅9:37-43

‘귀신 들린 아들, 내 안에 속 사람을 향한 창문에 문제가 생긴 것’

이 있습니다. 래셔널은 주님으로부터 속 사람을 통해 들어오는 내적 진리를 이해하고, 그것을 다시 겉 사람에게 가르치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나는데 있어 래셔널은 대단히 중요한 능력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래셔널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주님은 자기가 아는 만큼, 배운 만큼 선택하고 진실한 삶을 사는 사람에게 래셔널을 열어주신다고 합니다. 본문의 아이 아버지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말씀의 글자의 뜻에 따라 선하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들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첫 번째 래셔널입니다. 그런데 처음 래셔널이 열릴 때는 자신의 지적 능력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주님이 열어주시는 진리를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래셔널이 닫히고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또 본문에 귀신 들린 아들처럼 진리를 왜곡하는 악한 영에 사로잡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때 래셔널이 다시 돌아올까요? 진리를 마음대로 추론하는 버릇을 버리고, 단순한 마음으로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말씀의 글자의 뜻으로부터 내적 진리가 보이는 때가 옵니다.

그때가 래셔널이 다시 열리는 때입니다. 래셔널이 병이 들면 진리를 이해하지 못할 뿐 아니라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욕망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별이 들지 않는 곳에 곰팡이나 독초가 자라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래셔널은 우리 마음에 빛이 들게 하는 창과 같은 것입니다.

이 말씀에 귀 기울이시는 모든 성도들이 진정한 래셔널을 가지고 매일같이 거듭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사13:12)**

아멘

원본

2019-06-23(D1)

서울 새 교회 이순철 목사

설교

2023-05-28(D1)

한결같은 교회 변일국 목사